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81호 [루게 제 24329호] 주제 102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박태성동지,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연구소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연건축면적이 6,100여㎡이고 연구소청사, 연구용버섯재배실, 원료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는 버섯재배공업화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에 따라 건설된 버섯연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맛있게 영양가 높은 버섯을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현대적인 버섯연구소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파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긴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버섯연구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되고 버섯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춘 버섯연구소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혁소 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각종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전자도서관, 제품보관실, 버섯재배장 등 연구소의 여러곳에 들리시



여 건설정형과 연구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주제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버섯연구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버섯재배장은 물론 사무실, 기본청사와 보조청사를 련결하는 외랑, 현판부, 휴식장 등 모든 요소들을 그 어디

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특색있게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대로 버섯연구소의 무진화를 실현하고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현대적인 실험기구들과 설비들을 그준하게 갖추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버섯기질발효기를 비롯하여 연구사업과 버섯재배에 필요한 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설치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버섯생산바람이 일어나고있으며 전국도처에 능력이 큰 버섯공장들과 버섯생산기자들이 꾸러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

려면 과학연구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식용 및 약용버섯재배기술을 연구완성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며 버섯재배에 필요한 균종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버섯생산단위들에 대한 과학기술지도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버섯연구 및 재배와 관련한 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그것을 해당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버섯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자들이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연구소를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과학연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하게 정말 잘 건설했다고, 군인건설자들이 일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낼데 대하여 지시하였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것을 제일화한 인민군대이기에 거어이 해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혁명군대의 본래이라고, 인민군대에 맡긴 보람이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통하여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나가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의 고유한 모습,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의 지휘관들, 연구소의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태양의 빛발속에 주체의 당기발은 힘차게 나뭇긴다

10월의 하늘가에 우리의 당기가 나뭇긴다.

혁명과 인민을 이끌어 력사의 언덕들을 넘고 헤쳐며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기발을 우러를 때면 붉은 기록속에서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 빛발쳐온다.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시어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쫓아주시셨으며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끝없는 영광과 번영을 기약해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친근하신 모습.

오늘도 당보에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었다.

이 땅의 남너로소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 건설업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친근하고 영명하신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오늘도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 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결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잊지 못할 16년전의 10월 8일 온 나라가 해운는 바다처럼 설레이었다. 그것은 력사의 의지였고 인민의 절절한 의사와 철석같은 신념의 뚜렷한 파시였다. 우리 당력사에서 뚜렷한 봉우리를 이루는 민족적대경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대표회들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불같은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적령도자의 품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신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배후시여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우시고 온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이 땅에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30여성상의 혁명활동로정은 백두명령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계승자, 당과 인민의 결출한 령도자의 가장 성스럽고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여말로 정치에서 로속하고 군사에서 비범하며 경제와 문화에 박식하고 외교에서 원숙하며 인간적으로 다정다감하고 위인중의 위인, 명장중의 명장이시이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선포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보도를 받아안는 끝없는 영광과 소원성취의 순간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있고 피눈물의 언덕에서부터 흘러온 3년간을 돌이켜보았다.

얼마나 존엄하고 간고한 시련을 우리가 헤쳐왔던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지구를 휩쓴 반사회주의의 광풍,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와 끊임없이 덮쳐드는 자연재해...

동유럽나라들의 붕괴에서 우리 인민이 느낀것은 령도자를 잘못 만나면 땅이 변해되고 땅이 무너지면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인민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처지에 굴러떨어진다것이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높이 휘날리는 조선로동당의 당기, 백두에 휘날린 붉은 기록에 마치와 닳, 붓을 아로새긴 우리 당의 기발을 더욱 소중히, 더욱 경건하게 우러렀다.

세기의 격랑을 헤쳐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고 김정일동지는 곧 어머니 우리 당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였기에 력사의 풍운속에서도 우리 당기발의 색조는 변색없이, 탈색없이 붉게 타버렸으며 더욱 힘차게 나뭇기게 되였다.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귀전에 울려온다.

《나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지만 당을 떠나서는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창건하시니 나에게 넘겨주신 위대한 당입니다.》

당을 선군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강화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89(2000)년 10월

발전시키고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뭉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오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앞에 다가든 시련을 헤쳐가시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대고 조선군에 불러들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반제국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고수하고 강성

국가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제끼게 되였다.

류레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 당이 어머니당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실험은 그 열매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당기발을 틀어쥐시고 높이 휘날리신 위대한 장군님,

조선로동당기는 진정 김정일동지의 붉은 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10월 8일이 있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영광이 누리에 찬란한 오늘 10월 10일도 있다.

하기에 뜻깊은 10월의 이날을 맞는 천만

인민이라면 그가 누구이로 당에서 책임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고 보살펴주고 사회에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여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정 책이며 자신의 인간철학의 핵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해 자신의 탄생일에 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나는 올해에 인민생활문제를 풀 결정심을 하였습시다. 인민들이 당을 하늘처럼 믿고 있는데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처럼 좋은 인민은 세상에 없 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다 리해하고 참고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열정에 맞으며 도덕의리적으로 보아도 마땅한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직함은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지니셔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곧 우리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인민은 혁명의 어려운 년대, 폭풍우를 다 겪으면서도 우리 당을 그 무엇보다도 더 숭상하고 따라왔다고,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숭엄한 감정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고귀한 재부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는 조선로동당기발을 혁명의 군기로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당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시대의 진군가로 울려가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당기발아래 우리 군대는 조국의 자주적존엄과 평화를 억척같이 지켜가고있으며 인민은 창조와 로동으로 강토를 넓혀 갔다.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으며 공장에는 비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곳곳마다에 위대한 것이 온 나라의 해빛같은 곳에 자리잡은 학교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리고 학단 등산 촉목을 보내주고계신다. 그 사랑과 믿음어린 촉목, 이 세상 가장 역센 불굴의 힘을 주는 촉목을 받아안으며 이 땅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땅을 따라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높여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기속에 계시며 태양의 빛발로 우리 조국의 앞날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영원한 명산성토를 꾸려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어린 촉목, 이 세상 가장 역센 불굴의 힘을 주는 촉목을 받아안으며 이 땅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땅을 따라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높여가고있다.

뜻깊은 10월 8일,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백천백승의 기치 조선로동당기가 더욱 힘차게 나뭇기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피해당사자 김일성에 자기 어머니가 되기를

《아마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 하는 사람이면 물어보면 첫번째는 어머니를 꼽을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한 번 따끔하게 타일러주고는 다시 그것을 입밖에 꺼내지 않는다. 이것은 결함을 범하였다가 자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본래의 위치에서 사립해된 한 당원군의 가식없는 고백이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로 여기에 혁명의 길에 하나의 전사 뒤엎어져도 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발을 휘날리며 대오에 세워주는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가 어려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넓은 사상관점과 뒤엎어진 사업기풍, 일분새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합니다.》

1970년대 중엽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군당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다가 파오를 범하고 공장에 나가 일하고있는 일군에 대하여 료해 하시였다.

그 일군으로 말하면 70일전투가 한창이던 때에 농촌건설용으로 나가는 차체를 조금씩 돌려 계획외에 공사를 벌려놓았으며 건설을 당장 중지하라는 요구도 무시한것으로 하여 강한 비판을 받았다.

왜 농민들에게 분화주먹을 지어 출생자를 못했는가, 이것이 과연 인민을 위하여 부무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어긋난다는것을 몰랐는가하고 하는 날카로운 비판

을 받고서야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자신을 단단히 혁명화할 결심을 하고 그날날 잔병을 굴리며 일한적이 있는 기계공장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갔다. 그 일군은 로동자들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 당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 당을 받드는 마음이 티없이 깨끗한 로동계급의 충실성을 배우겠으니 잘 도와달라고 진심을 터놓았으며 전직관념을 다 버리고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자기의 결심과 그에 따른 노력은 터놓았으며 전직관념을 다 버리고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자기의 결심과 그에 따른 노력은 터놓았으며 전직관념을 다 버리고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은 한 무더위를 무릅쓰고 산골마을을 찾아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책임일군의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을 잘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해당 일군에게 그러면 좋다고 환히 웃으시면서 그 동무의 사업을 계속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혁명동지로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한없이 따사로온 품속에서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하기에 그 책임일군도 자식들은 어머니가 곁함을 타일려주면 그것을 용감하게 고쳐나가게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시는 충고는 전사들에 대한 믿음의 표시라고 자기의 심정을 절절히 토로하였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로 어엿하게 자라난 일군이 어찌 그 하나뿐이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내달리는 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진격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불패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투사들을 전국각지로 떠나보내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으로 개신하신 직후에 있는 일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몸가짜이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한시도 지체없이 혼란된 질서를 수습할것을 요구 하였고나 조국에 돌아와 휴식도 못한채 각지로 떠나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열거된 무거운 임무를 같이 자각하고 지방에 나가서 혁명가담게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동해안의 각지와 서부지구로 향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 예지로 분석해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해주시어 이런 조치에 의하여 그후 당장건준비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되었다.

현신으로 떠올리신 당창건의 아침

주제 34(1945)년 10월 어느날이었다. 골짜기에도 그리시던 고향민경대를 지나 장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오시여 공장부구의 방도를 대하여 가르쳐주시니라 온종일 불멸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저녁에도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당창립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어느덧 밤은 소리없이 깊어 갔다.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벽이 밝아오는데 잠시라도 쉬어야 하겠다만 간절히 말씀드렸던 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지고 참가자들의 시선은 일시에 위대한 수령님께로 집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며 로동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생각하는데 그렇 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로동자는 물론 농민도 로동을 하며 사무원도 정신로동을 하고있다. 그 후가 두 당을 창건하여 창립할 당은 다같이 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조직하여야만 그 명칭을 로동당이라고 하자는것이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래서야 당의 명칭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된 회의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적인 찬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 온 나라 인민 모두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우리 당의 고귀한 명칭은 이렇듯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사색의 결정체였다.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사설

위대한 한 김 정 일 동 지 의 당 건 설 사 상 과 업 적 을 끝 없 이 빛 내 여 나 가 자

전당, 전군, 전민이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작속도를 창조하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제 86(1997)년 10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주체의 당건설사업, 강성국가건설사업수행에서 기대한 의의를 감내하며 력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으로써 수령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되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근본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존엄과 백승의 위력, 양양한 전도는 이날과 하라 못알아볼 수 있다.

설의 거장으로, 사회주의정치원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셨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력사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찬란히 빛내여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수령의 당건설의 세기적도법을 창조하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을 마련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략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성스러운 력사는 장강 만세기가 넘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신 첫 시기부터 독창적인 수령중심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구현해오셨다. 전당 김일성주의의 가치관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당사령과 당활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만이 우리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전투적당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철결로써 몽친 일심단결의 전위조직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은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혁명승리의 가장 중요한 담보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는데 있다. 전당 김일성주의의 가치관에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결없이 충실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튼튼한 대중적,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존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항군시기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참모부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하여 위대한 선군의 가치관을 이 전진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다. 끊임없는 전진강행군길을 이어나가시며 인민군대에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시고 인민군대를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역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선군혁명실록에 렬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이 확고히 실현되고 선군혁명의 주체가 비상히 강화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의 존엄과 사회주의전위들을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는 근본비밀을 열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묘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밀뿌리가 튼튼히 다져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대제단으로 변이 나는 거창한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는 성스러운 력사가 펼쳐졌으며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위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교과들을 발표하시며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만사팔잡을 정복시키셨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명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가장 혁명적인 당,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제, 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전투적인 당,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항도자로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지지는 확고불동하다. 가장 고결한 총정경과 비범한 예치,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가 있게 우리 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울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리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

평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혈연적으로 렬결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셨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군들이 군중과 고탁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비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인민의 령도자가 우리 장군님이다. 고난의 행군, 강항군의 어퍼운 나날에도 인민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들과 사회적책들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생한 생각이 수많은 일머리 서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인민의 최고화신이니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존엄하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에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후손만대의 행복을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경묘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념위원의 파우명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가장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펼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구호에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말이 닳도록 뛰고 도 뛰는 참다운 인민의 복무자가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가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 인민대중애의자가 꼭 차닫히게 되었다. 오늘 마시령지구와 세포동관, 문수지구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 일머리는 인민을 위한 기쁨비적정조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인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당은 어머니라는 고귀한 부름과 더불어 인민의 신뢰한 신뢰속에 백승을 펼치셨다.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와 결의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1970년대대의 기초축성시기처럼 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상과 신념으로 따르고 순결한 함성과 의리로 만드는 혁명적기풍이 차갑히 해 해야 한다. 《마시령지구》창조의 불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것이다.

당이 번개처럼 치면 우리로 화답하며 창조와 변혁의 자랑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를 세계

빛내어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거창한 혁명실현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로 전진시키시게 하여 한다.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령명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함성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삼배 투쟁해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백승의 가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하여 지엄하며 그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정치적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해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장군님신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건설령도자가 집대성되어있는 당사수요요건과 현지지도단위들을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가치이다.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이다. 우리 당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항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불패성이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당을 수령명생위업의 전일체, 선군혁명동지의 대으로 철결로 굳히 나가자 한다. 누구나 자기 명도자를 신념으로 받들고 평범한 날이나 존엄한 날이나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는 전우, 동지가 되어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성명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결의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1970년대대의 기초축성시기처럼 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상과 신념으로 따르고 순결한 함성과 의리로 만드는 혁명적기풍이 차갑히 해 해야 한다. 《마시령지구》창조의 불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것이다.

당이 번개처럼 치면 우리로 화답하며 창조와 변혁의 자랑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를 세계

가 우리르는데 불패의 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가겠다.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을 통과하며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해나가는 비상한 창조본능에 온 나라에 차넘쳐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배우고 기상과 담력, 대중적영웅주의의 위력으로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주름잡으며 우리 당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한다. 자기 땅에 밭을 불고 논은 세계를 모다 최첨단들과전기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면에서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야 한다.

인민군대원들의 혁명적군정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능은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오늘 의 변천 시대의 본보기이다.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세를 따라배워 대조선투쟁마다에서 자기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군인협동작업으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인민군대원들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광범한 대중이 당정책완성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성명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당사령을 더 잘 꾸리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다.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나가는 강한 혁명적인 규율과 사업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화신성정시작을 진공으로 더 빨리 대조선투쟁마다에 혁신의 기상,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파란치게 하며 모든 당사업을 철저히 대중의 마음과 마음의 사상강화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 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누구나 자기 고장,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는 보석과 같은 마음을 지닌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운전자에는 혁명의 지휘사관들이 당이 맡겨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높은 실력을 지니고 언제나 전위적으로 사수하고 혁명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맡은 단위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진다. 믿어지지 않는 모든 사업을 번밀하게 작정하고 대담하게 일감을 벌이며 정장을 불태우기 전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정열적인 사색자, 창조는 능수, 용감무쌍한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혁명의 만년재보로 백승의 가치로 역세게 틀어쥐고나가는 가장 존엄하고 권위있는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유일적성명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결의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1970년대대의 기초축성시기처럼 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상과 신념으로 따르고 순결한 함성과 의리로 만드는 혁명적기풍이 차갑히 해 해야 한다. 《마시령지구》창조의 불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것이다.

당이 번개처럼 치면 우리로 화답하며 창조와 변혁의 자랑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를 세계

위대한 령도자 김 정 일 동 지 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되신 16돌 경축 중 앙 보 고 대 회 진 행

【평양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나라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이날을 맞는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현으로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셨으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7일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 합적인 경모심과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관이 주체혁명위업을 최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와 신뢰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호가 장식되어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이머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식단체에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상 백두산대형이 걸려있었다.

대회 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김정일동지, 김경애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태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김영춘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서주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김경애동지, 광범기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김창성동지, 로두철동지, 최부일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역기관, 로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당세 포비서들, 공로자들이 주식단체에 나왔다.

대회는《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며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역사적사색이나 참가자로서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 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미 제 침략군 핵라격수단들이 빛어낼 참사에 대하여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우리의 인쇄성은 노력으로 완화되어가고있던 조선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악화일로에로 치닫고있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은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피괴들의 지속되고있는 반공화군군사적대항공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10월 4일 새벽에는 지난 9월 30일부터 조선동해에서 비밀리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감행된 련합해상훈련에 참가하였던 미제침략군 핵동력

항공모합각단인 또다시 부산항에 기어올랐다.

이 타격단은 100여발의 핵탄을 적대한 핵동력초대항공모함 《조선 워싱턴》호와 술한 유도탄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호위함 등으로 편성되어있다.

《조선 워싱턴》호항공모합각단은 10월 8일부터 조선남해에서 다시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삼고 일본 침략군과 남조선피괴들의 합심집단과 함께 대규모의 련합해상타격훈련에 진입하게 된다하고 한다.

지금 미래는 항공모합각단을 주축으로 하여 강행하게 되는 이번 련합해상타격훈련이 핵시공과 미사일발사를 포함하여 우리의 있을수 있는 그 무슨 《도발》을 억제하고 제놈들이 바라는 《반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군사적합공공세라고 내놓고 떠벌이고있다.

이러한 떠벌임은 며칠전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정책도 우리를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한 국무장관을 비롯한 오바마미행정부 고위인

물들의 공언이 한자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지속되고있는 모든 군사적움직임이 상전과 주구사이에 우리에게 대한 선제 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맞춤형경제전략》이라는것이 채택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있다.

대회 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김정일동지, 김경애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태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김영춘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서주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김경애동지, 광범기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김창성동지, 로두철동지, 최부일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역기관, 로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당세 포비서들, 공로자들이 주식단체에 나왔다.

대회는《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도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때없이 가하고있는 당사자도 다름아닌 미국이 기여물이다.

미국은 우리 인민과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떤 적대세력의 협약한 도발책동도 자체의 막강한 권력으로 순간에 짓부셔버 자신있게 맞받아나갈수 있는 단단의 격동태세를 갖추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제102(2013)년 10월 7일 평 양

위대한 어머니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그 품 때 나 못 살아!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 작품들을 보고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니당이라는 말속에는 우리 당에 대한 두려운 신뢰와 함께 장래운명까지 보살피 줄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크나 큰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각지의 독자들이 분사편집적으로 수많은 글 작품들을 보내오셨다.

사동구역에서 사는 박성일동무는 당창건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를 품에 안아 사랑을 주고 정을 주어 키워준 어머니당의 은정을 잊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서정시 2편과 수자풀이 시 1편을 보내오셨다.

서정시 《오, 조선로동당이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러러 떠치는 인민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이렇게 세월의 흐름속에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리는 온 나라에 울리게 조선인민군 군관 리원호동무는 가사 《내 인생의 불빛》에서 이렇게 썼다.

푸른 꽃 필차라고 걸음걸음 정을 주고 인생을 꽃피우라고 사랑다해 가꿔주네 별빛없는 밤길에도 나의 앞길 밝혀주는 사랑의 그 미소 내 인생의 불빛이여라

래도 다 맡기고 끝까지 충정다 할 마음은 그가 쓴 가사 《선군의 붓 높이 들리》에도 뜨겁게 비껴갔다.

... 총애와 마지, 닷 잠으며 조국을 알고 신념의 글을 쓰며 당을 따르네 우리 운명 붉은기에 맡기고 사내

아, 당을 따라 선군의 붓을 높이 들리

...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주기 위한 건설의 대진성기를 펼쳐 가는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담은 글 작품들도 적지 않다.

위대하여 널리리춤 절로 내내 우리 자랑 문수거리 평양의 자랑일세

만경대구역 서산동 52인민반에서 사는 설인갑로인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을 당의 품이라고 격조높이 웨치면서 감상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이 땅의 천만군민모두를 한몸에 안으시고 제일동지, 제일전우로 믿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고계십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선군조선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고있으며 충정을 다하고있는 것입니다.»

대동강구역 청류3동 7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지복로인의 가정에서 울리는 한 편의 노래가 있다. 가요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이다.

우리는 열매진 꽃지 부로인의 집을 찾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온 가족이 근 30년을 이 노래와 함께 살아온 남다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김지복로인의 남편이었던 김희섭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남편이 전선으로 달려나간 뒤 12.11.10.에서 싸우면서 전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화선독창가로 사랑을 받던 그는 어느 한 전투에서 위대한 손길이 인민의 가슴에 희망을 주네

당인 품인 우리 사는 집

대동강구역 청류3동 7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지복로인의 가정에서 울리는 한 편의 노래가 있다. 가요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이다.

우리는 열매진 꽃지 부로인의 집을 찾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온 가족이 근 30년을 이 노래와 함께 살아온 남다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김지복로인의 남편이었던 김희섭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남편이 전선으로 달려나간 뒤 12.11.10.에서 싸우면서 전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화선독창가로 사랑을 받던 그는 어느 한 전투에서 위대한 손길이 인민의 가슴에 희망을 주네

위대하여 널리리춤 절로 내내 우리 자랑 문수거리 평양의 자랑일세

만경대구역 서산동 52인민반에서 사는 설인갑로인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품을 당의 품이라고 격조높이 웨치면서 감상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이 땅의 천만군민모두를 한몸에 안으시고 제일동지, 제일전우로 믿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고계십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선군조선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고있으며 충정을 다하고있는 것입니다.»

김지복로인의 남편이었던 김희섭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남편이 전선으로 달려나간 뒤 12.11.10.에서 싸우면서 전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화선독창가로 사랑을 받던 그는 어느 한 전투에서 위대한 손길이 인민의 가슴에 희망을 주네

내 태어나 처음 번지던 어머니란 딸과 같이 정겨웁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던 어머니 품만 같이 따사로운 아, 우리 당

... 비록 시어는 요란하지 않아도 담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천만군민의 진정이 그대로 비껴 흐르는것으로 하여 구절구절을 무심히 대할수 없다.

이 땅의 한 시인이 격조높이 웨치듯처럼 기쁨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겨어도 구질없이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이뤘고 잊을뻔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라고 당을

파사른 그 정은 내 가슴에 울려들고 비노나 눈이 오나 그 손길은 곁에 있네 불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나의 운명 지켜주는 사랑의 그 손길 내 인생의 불빛이여라

세월의 비바람에 산천은 변해도 대를 이어 더해지는 정은 끝 없네 저 하늘의 노을처럼 이 몸 태워가리 사랑의 그 믿음 내 인생의 불빛이여라

어머니 우리 당에 운명도 미

아이들의 오람 평양산원 마주모여 행복동이 어서 크라 옥류아동 병원 솟아나네 널리리 춤 절로 내내 우리 당이 고마와 널리리 춤 절로 내내 우리 자랑 문수거리 평양의 자랑일세

... 무엇이 늙음을 이렇게 젊어지게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매일에 대한 확신이며 신심입니다.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이끄는 무한한 행복감, 세계가 공인하는 최세의 천출명장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세상의 이목이 여기 조선에 쏠리고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품어주고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손길이 인민의 가슴에 희망을 주네

... 위대한 당의 현명 한 평도가 있기에 그 품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인민이 떠치는 다함없는 청춘과 흥모의 노래는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옥 경

온 나라가 잠든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다. 당중앙의 불빛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불려오는 당중앙창가의 밝은 불빛이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그 열매였던가. 헌신의 그 밤들과 더불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졌고 이 땅에는 비야의 년대기들이 빛났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범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수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당중앙의 불빛을 바라보느라

면 가장 뜨거운 추억이 이 가슴 파고든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명선도, 문학예술과 출판보도부문에서의 일대 혁명,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대진성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정력적인 령도의 낮과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당중앙의 불빛은 오늘 우리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며 더욱더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

그 불빛과 더불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

진정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내 조국의 무궁번영, 인민의 행복과 뜨겁게 이어져있는 불빛이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의 불빛을 신망깊이 새겨안고 사는것이다.

그렇다.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 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당중앙의 저 불빛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무궁토록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 범



석탄증산성파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는 덕천탄광의 탄부들 본사기자 김철 우 찍음

당중앙의 불빛

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삼고,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4차 대표자대회, 조선로동당 제 4차 세로비서대회 진행...

지금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는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단숨에의 기상으로 이 땅에는 전례없는 창조와 건설의 대가늠비들이 세워지고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7일 주조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소식

정춘미선수 여자력기경기에서 금메달 쟁취

중국 천진에서 진행되고있는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춘미선수는 7일 여자력기 63kg급경기에서 순간제기와 빠른 추기, 제치있는 편정동작 등으로 끌어올리기에서 97kg, 추켜올리기에서 129kg를 들어올려 종합 1등을 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중국팀을 1:0으로 이겼다

제 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우리 나라 팀과 중국팀 사이의 경기가 7일 중국의 천진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와 중국, 중국대륙, 일본팀이 참가한 경기에서는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로씨야 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주조 로씨야방문대표단 공사참사가 전승하였다.

발협조총국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과 피피페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협천한 군사적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나가고있다.

이런 미국과 피피페군부두머리들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 45차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자기전통제전환제연기문제, 련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맞출형역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선제타격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과 피피페당의 이런 군사적모의를 조선반도에서 대화평화화평을 파탄시키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핵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궤히 단죄한다.

오늘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저 무슨 《의혹》이니, 《징후》니, 《은혜》니 하는 구실을 붙여 침략행위를 일삼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미국은 그러한 상투적수법으로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핵무기사용용서》를 운운하면서 핵전쟁도발죄에 불을 달러 하고있다.

이런 침략적수법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나 순간의 오란으로도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가 더욱 엄중히 조성되고있다.

미국과 피피페당이 떠드는 《북핵위협》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누구도 그에 더는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피피페당들은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으로 우리를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며 우리의 대화평화공세를 차단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거역로 달성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분을 더욱 불려일으킬뿐이다.

회사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무적의 선례타격과 군사적도발에도 다 순변하여다.

미국과 피피페당이 우리의 경고끝까지 외면하고 북침전쟁도발의 길로 나선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감히 우리를 넘보며 조금이라도 실체한다면 무자비한 선제공격으로 최후의 파멸을 안길것이다.

미제와 피피페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주제 102(2013)년 10월 7일 평양

전국도대항체육경기 성황리에 진행

평양체육관에서 전국도대항체육경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7일 각 도체육단부문 볼구 종목과 대중체육부문 배구, 바둑, 당기종목의 준결승경기가 벌어졌다.

1조에서 1위를 차지한 판모름팀과 2조에서 2위를 한 박수갑체를 보았다.

볼구경기에서는 대령강팀이 수양산팀을 8:4:6으로, 청강팀이 판모름팀을 5:3:5으로 이겼다.

여자배구경기에서 참가한 평안도팀과 함경북도팀이, 황해남도팀과 지강도팀사이의 바둑경기경기는 판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이밖에도 씨름특별맹전과 체육유희오락경기가 판람자들의 관심속에 벌어졌다.

이날 경기들에서도 모든 팀 선수들은 높은 체육기술과 함께 집단주의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 판람자들과 응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기는 계속된다.

글 본사기자 리성호 사진 본사기자 림학택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이 본보기를 창조하신 히세의 정치거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고 당파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본성이며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붉은 당기가 펄럭 휘날린다. 철지공과도 변색을 모르고 언제나 힘있게 나뭇기는 우리의 붉은 당기, 그것은 그대로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일체화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위력을 상징하는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우리 당의 창건기념일을 앞둔 지금 세계 진보진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불멸의 영도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기고있다.

백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 하나의 영도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반식같이 다지시었다.》

또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실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업적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남김없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반식같이 다지시었다.》

그의 말과 같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부처하는 어머니당, 선군의 기치를 높이 펴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라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참모습이 있고 불멸의 위력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영도력으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셨으니

흔들리지 않는 절대불변의 것이었다.

1990년대는 우리 당과 혁명이 있어서 엄혹하고 시련에 찬 나날이었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들,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적책동, 편이든 자연재해 등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려는듯 겹쳐들었다. 적대세력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제 자기의 지도사상을 더는 고수해나갈 수 없게 될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우려하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의 선언이 온 행성을 뒤흔들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나는 당과 함께 충대를 틀어쥐고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웠는 주제의 붉은기, 사회주의조선을 영원히 지켜나갈것이며 부강조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후비의 단력과 배짱으로 원수들을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내리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주시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고전적작품들을 발표하시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수상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영도자로서 당의 선진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시으로써 참다운 주체의 혁명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정성격을 계속 굳건히 고수해나가도록 하시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당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당 건설 위대한 혁명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장군님의 혁명적 영도자였기에 우리 나라는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고.

히기에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사주화위영의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었고 그에게 사회주의의 운명, 인류의 미래를 위탁하였다.

《인권》모략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

북남대결에 환장한 남조선피괴들이 몰인지 몰인지 모르고 갈수록 분별없이 해담비고있다. 최근 피괴페당은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남조선 자료들로 그 무슨 《2013북인권백서》라는 모략문서를 발간하는 놀음을 벌려왔다. 이것은 《인권》의 간판에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악랄하게 헐뜯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도발이다.

동쪽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과 대결관념에 사로잡힌 남조선피괴들은 《인권》모략소동을 우리의 존엄을 제도해 해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다. 피괴보수페당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요란히 떠벌이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남조선사회에 동쪽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 문을 고취하려고 발방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세누리당》 대표 황우려라는자는 《북인권백서》이 지금까지 채택되지 못한것을 《인라갈게 생각》한다느니 뭐니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그 누구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대를 돌구었다. 이러한 속에는 《2013북인권백서》발간놀음이 별 다른 것은 끈질긴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으로 우리를 모해하고 체제대결야망을 기어오르실것을 위한 남조선피괴페당의 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괴페당이 《2013북인권백서》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중언》이니 뭐니 하는머위니 나발을 늘어놓지만 가소롭기 그지없다. 인건의 초보적인 함성과 도의마저 저버리고 자기의 고향과 부모지자들을 서슴없이 배반한 더러운자이며 무슨 소리를 지어대지 않았겠는가. 이런 비열한들에게까지 의의까지 없으면 안될 정도이니 피괴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게는 되었다.

피괴페당이 허위와 남조, 위곡으로 엮어온 그 무슨 《백서》라는것을 내놓고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는것은 모략과 기만에 이끌이 난 그들의 악랄한 몰골만을 드러내놓을뿐이다.

세계혁명의 인권불모지, 민주주의무덤으로서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는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시되고 짓밟히는 사람 뜻할 인간생지육신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얼마전 몇몇 고관 벼는 남조선 사회를 등지고 살길을 찾아 우리 공화국으로

넘어오르던 무고한 주민이 백수에 피괴군악당들에 의해 수백발의 총탄세례를 받고 무참히 사살된 사실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민주인사들이 《중북》으로 몰려 갖은 정치적악해와 파쇼탄압을 당하고있는것은 그것을 립증해준다. 세계앞에 민주의 교살자, 인권유린의 왕조로 락인적인 피괴페당이 그 누구의 《인권백서》를 만들어냈다는것자체가 삶은 소대거리도 폭소를 터칠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괴들은 주체제국 그 누구를 시비하기 전에 《유신》파쇼체제를 부활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말살하고있는 자들의 죄행부러 들어켜보아야 한다.

피괴페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결국 《피괴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범죄적용의 산물로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격화, 전쟁방에 가져올것이다.

지금 남조선피괴들이 감행하고있는 《인권》모략소동은 가족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더욱 떠밀고있다. 바로 여기에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의 엄중성과 반민주적본질이 있다.

보다싶이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모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던 북남관계가 또다시 악화로 치닫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북남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면서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에 피논이 되어 날뛰고있는 피괴페당의 망명모략이다.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찍지 않는 극악한 도발이다. 날로 무분별해지는 피괴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그대 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그 누구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털끝없이 파도 모독하고 건드리는대 대해서는 후호도 율화 따듯하고 단호한 응징을 가하는것은 우리의 본래이며 혁명적기치이다.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대결소동에 미쳐 날뛰는자들은 어디에 숨어있든 마음편히 살수 없으며 누구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남조선피괴들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매여달릴수록 가증스러운 역적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순위를 성취할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천백배로 역세여지고 있다.

심 철 영

북남관계개선의 방도는 공동선언리행에 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증남지구협회 대변인이 주장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증남지구협회 대변인이 4일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위한 정교하고 수고하고 리행하기 위한 정교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깨고 또다시 정세를 위협천만만 파국에 돌아가고있는 남조선 피괴페당의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전격화를 막고 공동선언을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정상상태에 올려세우기 위한 공화국의 온갖 성과와 노력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 문제, 휴전선 가축, 친척상봉문제 등에서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피괴페당은 오만하게 말하며도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인듯이 흑백을 전도하면서 진실성을 옹호하고있고 단죄하였다. 더우기 북남관계를 불순한 정치적책동에 악용하려는 피괴페당의 책동에 경종을 울린 공화국의 정당하고 단호한 조치에 대하여 《반인륜적행위》니, 《단호한 응징》이니, 《국제적 체제》니 뭐니 하고 헐소리치면서 다시금 대결소동을 벌리고있는 피괴당과 비열하고 나쁜 짓을 옹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분노와 단죄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일련의 개선분위기는 공화국의 주동적 노력으로 6.15시대가 다시 북우리는 과정이며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온 겨레의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였었다고 밝혔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는데는 물론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위한 온 겨레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악의 정치적혼란은 누가 몰아왔는가

가득이나 복잡하던 남조선정국이 현 피괴집권자의 측근이었던 보견복지부 장관 전의 사퇴로 더 큰 혼란의 수렁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까지 남조선정국은 현 피괴집권자의 측근이었던 보견복지부 장관 전의 사퇴로 더 큰 혼란의 수렁속으로 빠져들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황해한 청와대패거리들이 《국무총리》를 내세워 《없던 일 하자.》고 말했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다시금 밝혔다.

청와대가 또다시 전영에게 《임무부기》를 지시했지만 그는 끝내 뿌리치고 손절하기까지 꺼리던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세누리당》패거리들은 《사상 초유의 명령불복사태》니, 《무책임》이니 하고 아우성쳤다.

전영은 이미 몇달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겐 청와대가 주관과 독단을 부리는대 대해 이러저러한 불만을 터놓으면서 《장관을 해먹기 힘들다.》고 로골적으로 항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초선정》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자기가 내놓은 안을 집권자가 무태고 무시한다는 하여 사퇴의사까지 커다란 반발과 압박에 직면한것이다. 마침내 그는 울분을 터뜨리며 전격적으로 사퇴를 강행하게 되었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야당들은 보견복지부 장관 사퇴는 재중총리장관과 함께 《총체적인 인사난국》이라고 비난하면서 공세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민주당은 《한 조직의 수장은

남조선대학교수들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대학교수들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대학교수들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대학교수들은 4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현 《정부》가 집권한 후 남조선사회가 급속히 퇴보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박근혜가 《유신》독재시기를 연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조장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여당정권자들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 비법적으로 치러졌다는것이 사실로 드러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현 《정부》가 배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보원사건과 관련하여 집권자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당국이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민중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선언은 경고하였다.

공화국을 찬양한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남조선 피괴청주지방법원이 5일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현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피괴법원은 그가 2003년 인터넷에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적정현물》을 가지고있었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 피괴보수페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권부독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파쇼적 몰압에 더욱 매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또다시 드러난 정보원의 불법행위

남조선에서 피괴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또 다른 사실을 드러나 사회 각계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피괴정보원 원장 정훈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전 정보원

심리전단 성원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자기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대통령》후보로 나선던 안철수,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들을 올렸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상부에서 인터넷에 리명박을 찬미하는 동영상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보원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진보세력을 겨냥한 사이버활동을 벌인 사실에 대해서도 실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륜적인 특대형국가테로범죄를 끝까지 결산할것이다

대륙을 포함한 약 700명의 무력을 황궁속에서 동원할수 있다는 사견승인과 그 지휘권이며 조선에 와있는 일본본관인복도들에 대한 6 000명의 기밀자금지출원한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18년전인 1895년 10월 8일 일제는 대살인집단을 맺고 조선봉건정부의 황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무참히 학살하는 일대 참극을 벌였다. 이 비극적 사건은 울미더러 벌어졌다고 하여 울미사변이라고 부른다.

19세기말 조선봉건통치자들의 극심한 외세의존정책에 의해 우리 나라는 령장들의 각축전장으로 전락되었다.

일제는 당시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에서 청나라영토를 밀어내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러시아를 끌어들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명성황후를 그당 실력자면 대조선적십자회지배인이 허어게 질질 끌었다는것을 간파한 일제는 감히 명성황후를 암살할 용모를 꾸미고 실천행동에 들어갔다.

1895년 6월에 일제는 명성황후암살작전의 책임자로 특근장장 미우라 고로를 내세우고 이자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당시 일본살인부러들이 미우라에게 전 현한는 조선주재 일본공사미우라 고로와 몇몇 친위대 황궁을 둘러싸고 테러를 벌였다. 이 때 테러는 성공적으로 결산되었다.

10월 8일 새벽 광화문부근에 집결한 수백명의 일본살인악당들은 혼란때에 일제대대령관 황궁을 둘러싸고 테러를 벌였다. 이 때 테러는 성공적으로 결산되었다.

10월 8일 새벽 광화문부근에 집결한 수백명의 일본살인악당들은 혼란때에 일제대대령관 황궁을 둘러싸고 테러를 벌였다. 이 때 테러는 성공적으로 결산되었다.

남조선대학교수들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대학교수들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대학교수들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대학교수들은 4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현 《정부》가 집권한 후 남조선사회가 급속히 퇴보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박근혜가 《유신》독재시기를 연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조장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여당정권자들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 비법적으로 치러졌다는것이 사실로 드러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현 《정부》가 배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보원사건과 관련하여 집권자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당국이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민중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선언은 경고하였다.

공화국을 찬양한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남조선 피괴청주지방법원이 5일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현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피괴법원은 그가 2003년 인터넷에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적정현물》을 가지고있었다고 하면서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 피괴보수페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권부독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파쇼적 몰압에 더욱 매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